

“전통의 울림으로 미래를 열다”

대동문화재단,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29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소향·장사익·김향순 등 출연 판소리·대중 가요 등 다채 남도 대표 문화예술단체로

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보존과 시민 문화운동에 앞장서 온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대동문화재단은 1995년 5월16일, “우리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직접 가꾸고 지킨다”는 소명으로 출범했다. 지난 30년간 교육, 예술 후원, 답사, 문화 기획, 출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예술 발전을 실천해 온 문화예술 단체다. 이번 30주년 기념행사는 ‘함께 걸어온 30년, 또 다른 시작’을 주제로 펼쳐지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은 29일 오후 5시부터 8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다. ‘울림’을 슬로건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돌음무용단의 오프닝 공연 ‘신풀이’를 시작으로, 국악인 김산옥의 크로스오버 공연, 파두(포르투갈 대중음악)를 선보이는 임창숙의 무대가 이어진다. 이후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가수 소향이 ‘바람의 노래’, ‘Misty’, ‘Lean on me’ 등 대표곡을 열창하고, 양코르 곡으로 ‘I Will always love you’를 들려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김향순 명창은 이날 무대에서 전통 판소리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선보인다. 아울러 박맹싱어즈의 대중음악 무대, 가수 장사익의 감동적인 피날레 무대가 예정돼 있다. 장사익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버지’, ‘봄날은 간다’에 이어 ‘아리랑’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축하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티켓 예매는 전화(070-4496-5518 또는 070-4494-5507)를 통해 가능하다. 좌석은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6만원이다. 예매는 2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현장에서 티켓을 교환할 수 있다.

한편 대동문화재단은 지난 1995년 지역 청년 30여명이 모여 우리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올바른 인식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창립된 ‘대동연구회’가 시작이다. 1999년 사단법인화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한 뒤 문화유산 답사, 인문학 강연,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예술가 지원 사업 등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시민문화예술 운동을 이끌어왔다. 현재 2000여명의 회원과 함께 남도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상(199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2006), 문화재청장상(2010),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대통령상(2010)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통해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대동문화재단 관계자는 “30주년을 맞이한 대동문화재단은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그간 아낌없는 응원과 후원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70-4496-2788)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사랑에 빠지게 해드립니다”... 로맨틱 콘서트 오페라 무대

광주시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30~3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인기 레퍼토리 ‘사랑의 묘약’이 다시 시민들의 발길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제18회 정기공연 가족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30~3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의 묘미를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콘서트 버전으로 제작됐다. 도니체티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악적 표현이 한층 더 드러나며 원작을 충실히 축약한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구성돼 80분간 펼쳐진다. 아울러 극의 흐름을 돕는 해설이 함께해 오페라 입문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공연에는 이탈리아어 원어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한글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또 재치 있는 유머 코드가 곳곳에 더해져 누구나 유쾌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오페라 입문형 무대’로 기획됐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대표작으로, ‘세비야의 이발사’, ‘돈 파스칼레’와 함께 이탈리아 3대 희극 오페라로 손꼽힌다. 경쾌한 서사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우러진 두 막의 로맨틱 코미디로,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애창한 아리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Una furtiva lagrima)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18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주의 딸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순박한 청년 네모리노가 떠돌이 약장수 돌카마라에게 사랑을 이룰 수 있



‘사랑의 묘약’ 공연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는 ‘묘약’을 건네받으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다.

공연의 총연출은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지휘는 독일 오스나브뤼크 극장 카펠마이스터(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이며 독일 음악협회로부터 ‘미래의 거장(Maestro von Morgen)’으로 선정된 송안훈이(사)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지주의 딸 ‘아디나’역에 소프라노 김나연과 신은선, 순수한 청년 ‘네모리노’역에 테너 민현기와 김준태, 라이벌 장교 ‘벨코레’역에 바리톤 조재경과 나현규, 약장수 ‘돌카마라’역에 베이스 박찬일 등이다.

공연은 30일 오후 2시, 31일 오후 2시, 오후 5시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입장권은 전석 2만원이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박찬 기자

‘ACC 미래운동회’... 장애 벽 허문 모두의 문화축제로

지난 16일 장애·비장애인 참여 “모두가 어울리는 새로운 놀이”

지난달 30일 개막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선보이는 ‘ACC 미래운동회’ 전시가 장애·비장애의 벽을 허문 모두의 문화축제로 각광받고 있다.

18일 ACC에 따르면 복합전시1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미래운동회’가 지난 16일 열렸다.

‘ACC 미래운동회’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운동회’ 문화를 디지털 기술과 현대예술, 스포츠 문화를 융합해 미래형 놀이로 새롭게 제시하는 전시다.

ACC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현재 복합전시6관에서 열리고 있는 접근성 강화 주제 전시인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와 ‘ACC 미래운동회’ 전시를 연계한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 지난 16일 ACC를 찾은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소속 장애인 50여명은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전시 관람 후 ‘ACC 미래운동회’를 통해 새로운 놀이 문화를 경험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ACC 미래운동회’에서 참가자들은 모션 캡처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디지털 땅따먹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복합전시1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미래운동회’가 열렸다.

ACC 제공

등을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나현승(23)씨는 “AI 운동회는 처음 참가해 보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웬지 힘이 나서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운동회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ACC 전담장은 “이번 ‘ACC 미래운동회’ 특별행사는 장애와 비장애, 세대와 문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문화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ACC는 예술과 기술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즐기고 참

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CC 미래운동회’는 현재까지 2만여명이 다녀갔으며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2일에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와 교사, 학부모 등 45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오는 23~24일에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ACC 미래운동회’ 해커톤 대화와 운동회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ACC 미래운동회’는 다음달 1일까지 전시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